

아침부터 게임마니아 대기행렬... 부스도 역대최고 3208개

크로포

지스타 2019

넥슨빠지고 넷마블, 펠어비스 신작 방준혁 의장 “넷마블, 웰메이드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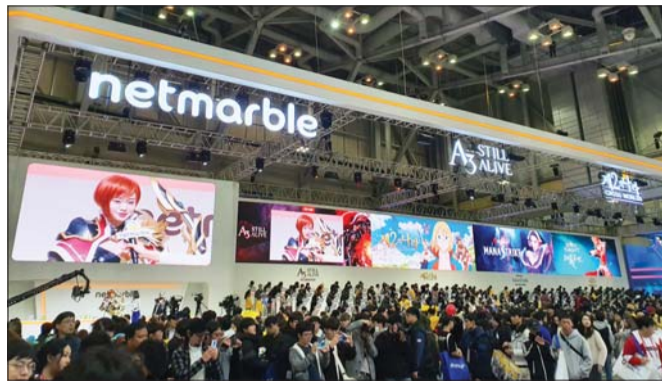
“넷마블 게임을 안한지 꽤 됐는데 역할수행게임(RPG)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위주였던 예년과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14일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가 열린 부산 벡스코 전시장 안에서 만난 박재린(29) 씨는 넷마블, 펠어비스 신작을 시연해보기 위해 친구와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박 씨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지스타를 관람하고 있다. 넷마블 ‘제2의 나라’를 시연해보던 그는 “동화같은 구조와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어 게임 시연이 편안하다”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한 휴교에 현장을 찾은 학생들로 인한 산인해를 이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



‘지스타 2019’에서 아프리카TV 부스에서 방송을 보는 관람객들.



‘지스타 2019’에서 넷마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

/김나인 기자

진흥원이 공동 주관을 맡아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15회 지스타는 36개국 691개사가 참가했다. 현장 부스는 전년 동기 2966부스 대비 8.2% 확대된 3208부스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스타 일반인 관람은 낮 12시부터였지만, 아침 일찍부터 전시장 주변이 관람객들의 대기 행렬도 붐볐다. 지난해 지스타에는 23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올해도 예년을 넘어서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작 보러 왔어요”... 넷마블·펠어비스, 기대감 ↑

이번 지스타에는 넥슨이 빠졌지만, 넷마블과 펠어비스가 신작을 내놓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대형 게임 ‘3사’ 중 유일하게 지스타에 참가하는 넷마블은 100부스와 모바일 게임 전용 250여대의 시연대를 마련했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라인업으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등 미공개 신작 2종에 ‘A3: 스틸 얼라 이브’, ‘매직: 마나스트라이크’ 등 총 4종의 모바일 게임을 내보냈다. 이날 넷마블 부스에는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방 의장은 “이전에는 게임을 스피드

하게 만들고 장르 선점을 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웰메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어비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사 신작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개발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를 맡은 슈퍼셀 부스는 ‘브롤스타즈’로 꾸며졌다. 브롤스타즈는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 연령층의 이용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실제 슈퍼셀 부스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등 비교적 나이가 어린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슈퍼셀 부스를 찾은 해운대중학

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14) 학생은 “브롤스타즈는 반에서 3등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단순하고 재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도 ‘보는 게임’이 대세... 전자·통신사도 지스타 출전

유튜브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보는 게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인 유튜브가 처음으로 참가해 부스를 꾸렸으며, 아프리카TV도 지난해 60부스에서 올해 100부스로 확장한 규모로 참석했다. 아프리카TV는 14일부터 17일까지 ▲철권7 ▲피파온라인4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등 다양한 종목으로 캐주얼 e스포츠 리그 ‘BJ 열망전’을 연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고사양 게임을 다운로드 없이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도 지스타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최초로 클라우드 게임을 들고 약 330㎡ 규모의 전시관으로 지스타에 참가했다.

/부산=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EU 다음 日 될 듯

EU, 대우조선과 합병에 최대 변수
지난달 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받아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품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실적 개선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에 최대 변수로 지적된 EU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을 제출했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EU 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양사가 수주하는 선박회사들이 EU에 대거 집중돼 이번 합병에 따른 시장경쟁력 약화 등을 EU 집행위가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심사가 복잡해 1차 심사결과에

정일인 오는 12월 17일 2차 심사 진행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는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완적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90일을 추가로 연장해 총 120일(휴일 제외)간 심사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7월1일 공정위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법적 공휴일을 감안해 단순히 계산한 심사 만료일은 오는 12월20일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다음 기업결합심사 신청국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2020년 상반기 내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게 현대중공업그룹 측의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또 LNG추진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에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IMO 2020)와 맞물려,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뿐 아니라 선박 자체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LNG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유용환 센터장(왼쪽부터), 예틴 톨 농림부국장, 아웅 뚜 농림부장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미얀마 측에 전달할 보급지원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SK텔레콤

SKT, 미얀마 전역에 콕스토브 제공

(난로 형태 조리도구)

SK 관계사 11곳도 동참
전국에 432만대 보급
온실가스 배출·조리시간 ↓

SK텔레콤이 지난해 추진했던 미얀마 콕스토브 사업이 11개 SK 관계사 차원으로 확대돼 미얀마 전국에 432만대를 보급하게 된다.

SK텔레콤은 SK 관계사 11개와 함께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있는 농림부 교육센터에서 NGO 단체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농림부와 함께 미얀마 전역에 보급할 콕스토브 및 차량 96대, 오토바이 240대 등 보급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콕스토브 보급 착수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착수식에는 아웅 뚜 미얀마 농림부장관 등 미얀마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영수 미얀마 주재 한국 공사, 유용환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콕스토브는 시멘트 소재로 만들어진 난로 형태의 조리도구다. 열효율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나무땀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미얀마 환경부와 함께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사가잉, 만달레이, 마피 주 등 건조지역 주민 대상으로 5만4000여대의 콕스토브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SKE&S, SK하이닉스, SK에너지, SK 종합화학 등 SK 관계사 11개로 참여폭을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늘렸다.

SK그룹은 향후 5년에 걸쳐 미얀마 전역의 172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432만대의 콕스토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기후변화센터는 올해 6월 미얀마 양곤에 현지사무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현지사무소는 콕스토브 제작, 보급, 주민 사용 교육 등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미얀마 정부 담당자와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SK그룹도 콕스토브 보급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90억 원 어치에 달하는 53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LGU+, 코세페서 통신비 ‘최대 반값’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선택약정 25%·U+숍 7%·특별 할인 액세서리숍 모든 상품 가격 20% ↓

LG유플러스는 국내 쇼핑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가해 통신요금·액세서리 할인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 14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제조, 유통,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행사다. 온·오프라인에서 약 650여개 업체가 참여

해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LG유플러스는 자급제 휴대폰 구매 고객이 공식 온라인몰 U+숍에서 ‘LTE 데이터33’, ‘추가요금적정없는데이터 44·49·59·69’ 등 총 8종의 요금제로 번 호이동 또는 신규로 유심을 개통할 경우 선택약정할인 25%, U+숍 요금 할인 7%뿐 아니라 특별 할인 18%를 적용해 통신 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U+숍에서 유심만 개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이 적용된다.



모델이 LG유플러스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또 LG유플러스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U+숍의 액세서리숍에서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